

“축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광주 개막전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의 경기가 벌어졌다. 1만 5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경기에서 상무와 일화는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명중 빛바랜 선제골... 첫 승 신고 연기

2008 K-리그에 나선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 상무가 모두 다음 경기에서 첫 승리를 기약하게 됐다. 9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골키퍼 김용대와 정성룡의 맞대결로 눈길을 끈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의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광주, 성남과 1-1 비겨
전남, 포항에 1-2 무릎
광태휘 발목 부상 교체

상무의 이강조 감독은 필승 전략으로 4-3-3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상무는 올 시즌 새로 가세한 박규선을 남익경, 고창현과 함께 쓰리톱으로 내세우고 전반전 주도권을 잡았다. 골키퍼 김용대의 선방도 이어졌다. 후반 투입된 성남 최성국의 활발한 움직임에 잠시 주도권을 잃었던 상무는 후반 18분 남카로운 역습으로 성남의 골문을 열었다. 상대 수비수가 상무 진영으로 올라온 틈을 타 박규선이 정확하게 페스한 볼을 김명중이 받아 강한 슈트로 연결시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무가 전열을 가다듬는 틈을 타 성남이 순식간에 동점골을 터트렸다. 교체 출전한 최성국이 후반 19분 중앙을 파고들며 김용대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뽑아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상무는 오는 16일 경남 FC를 홈으로 불러들여 첫승을 노린다.

전남은 지난 8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개막전(포항)에서 1-1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 종료 직전 남궁도에게 골을 허용해 1-2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과 정규리그 우승팀인 포항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K-리그 개막전에서 전남은 전반 26분 김광석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40분 용병 시몬이 동점골을 터트리며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후반 48분 올 시즌 고기구와 트레이드된 전남에서 포항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남궁도가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뽑아내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박항서 신임감독은 오는 16일 인천과의 원정경기에서 첫 승에 도전하게 되지만 앞날이 순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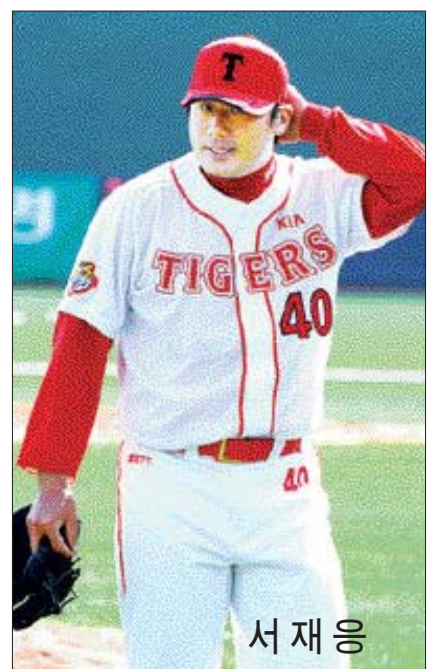
만은 않을 전망이다. 고기구, 김치우, 정경호 등 선수들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수비의 핵 광태휘도 부상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막전을 앞두고 자체 연습경기에서 발목을 빼었던 광태휘는 개막전 수비 도중 발목 부상 재발로 전반 37분 교체되면서, 팀의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 첫 경기에도 빠지게 됐다. 한편 부산 아이파크는 9일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전북 현대와 홈 개막전에서 후반 13분 터진 김승현의 결승골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뒀다. 수원에서 벌어진 수원-대전 개막전에서는 수원이 선제골과 패기골을 작렬한 예주의 맹활약에 힘입어 2-0 승리를 냈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는 FC서울과 울산 현대가 접전을 펼쳤지만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6골을 주고받는 골 폭죽이 터진 창원종합경기장에서는 두 골을 몰아넣은 신인 서상민을 앞세운 경남 FC가 대구 FC를 4-2로 눌렀고 제주 경기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후반에 차례로 터진 용병 라든치치와 보로코의 골에 힘입어 제주 유나이티드를 2-0으로 제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한화와 프로야구 시범경기

서재응 “아직은...”
용병 리마 “굿!”

서재응-1이닝 1실점
리마-5이닝 무실점

시범경기를 통해 한국무대에 첫선을 보인 KIA타이거즈 호세 리마와 서재응의 희비가 엇갈렸다. 리마는 지난 8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5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4-1승리를 이끌었다. 반면 서재응은 9일 대전 한화전 5회 말 0-0의 팽팽한 상황에서 등판해 1이닝 동안 2개의 안타를 내주며 1실점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날 KIA는 1-2로 분패했다. 리마는 첫 등판에서 체인지업, 커브, 포크 등 특유의 다양한 변화구로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불넷 없이 탈삼진 1개를 잡아냈다. 최고 직구 스피드는 143km를 기록했다. 리마는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돼 한국무대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컨디션 점검차 마운드에 오른 서재응은 한화 박노민에게 우중월 2루타를 허용한 뒤 김수연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해 1실점했다. 서재응은 이날 5명의 타자를 상대로 18개의 공을 뿌리며 140km 초반의 직구와 자신의 특기인 체인지업을 선보였다. 용병 내야수 윌슨 발데스는 빠른 발을 이용한 플레이어로 합격점을 받았다. 8일 경기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발데스는 연속도루를 기록한 뒤 김중국의 희생플라이로 해거점을 뽑아냈고, 9일에도 6회



서재응

초 3루 쪽 기습번트로 출루해 이현근의 우월 2루타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언더핸드 유동훈과 손영민은 8일과 9일 각각 구원과 선발 투수로 등판해 실점 없이 성공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올 시즌 마운드 전망을 밝게 했다. 한화와 1승1패를 주고 받은 KIA는 오는 11일 대구로 옮겨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9일 LG에 6-5로 승리해 2연승을 거두며 우승 후보팀의 면모를 과시했고, 지난 8일 SK는 김경문 감독이 빠진 두산에 5-1로 완파했으나 9일 SK-두산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팀 재창단에서 진통을 겪었던 우리 히어로즈는 9일 롯데에 3-2로 역전승, 공식경기 첫 승을 신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남녀 제주 힙쓸어

이승훈·이호석 男 3,000·1,000m 각각 금
美 안톤 오노·中 왕멍 남녀 개인종합 우승



9일 강원도 강릉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08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자 릴레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송경택(맨앞)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

쇼트트랙 대표팀이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녀 계주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미국의 간판 아폴로 안톤 오노(26)와 중국 왕멍(23)이 남녀부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또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계주 금메달리스트 이호석(22·경희대)은 남자 1,000m에서 1위에 올라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 영광과 함께 개인종합 준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남자 대표팀은 9일 강원도 강릉시 교통 강릉실내종합체육관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마지막 날 5,000m 계주에 송경택(25·고양

시청)-이호석-성시백(21·연세대)-이승훈(20·한국체대)이 나서 6분51초148로 캐나다(6분52초318)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대표팀도 3,000m계주에서 4분16초261로 캐나다(4분20초254)를 따돌리고 우승, 이번 대회 첫 금메달 소식을 알리면서 가카스로 '노골드 위기'를 넘겼다. 계주에 앞서 치러진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이호석이 1분26초462로 오노(미국·1분26초528)와 송경택(1분26초615)을 제치고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남자부 개인종합 우승자를 결정하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는 이승훈이 초반부터 단독으로 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을 한 바퀴나 따돌린 끝에 가볍게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개인점수 55점으로 오노와 동률을

이었던 이호석(5분00초939)은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오노(5분00초838)에게 0.101초 차로 동메달을 내줘 개인종합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전날 500m 금메달을 따낸 오노는 1,000m 은메달과 3,000m 슈퍼파이널 동메달을 앞세워 총점 68점으로 이호석(63점)을 5점 차로 따돌리고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기

쁨을 맛봤다. 양신영은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세계선수권대회 첫 출전에서 총점 37점으로 개인종합 3위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 왕멍은 이날 금메달로 3관왕에 올라 총점 107점으로 팀 동료 주양(76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리고 자신의 첫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동주 모친 위독 귀국

베이징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에 참가 중인 대표팀 4번 타자 김동주(32·두산베어스)가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10일 급귀 귀국한다. 김동주는 9일 대만 도우리우구장에서 열린 멕시코와 3차전에 앞서 “사를 전 어머니 이정민(57)씨가 세 번째 수술을 했는데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비 상공회비에서 별도한 평가할 리 모어레포트비용으로 확장한 리 회원권입니다.
승수에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상담 : (062)351-0095